

2012년 1분기

중국 경제 및 무역 동향

2012. 4.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I. 경제동향

1. 분기별 경제성장률

- 중국의 201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
 -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GDP 증대 목표치 7.5% 보다 다소 높음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2%, EU는 -0.3%, 일본은 1.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인도는 6.4% 기록

< 최근 중국의 GDP 추이 >

	액수 (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
2011년 3분기	265,788	9.1
2011년 4분기	150,345	8.9
2012년 1분기	107,995	8.1

자료: 국가통계국

- 중국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 세계 소비시장 위축과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이 중국 GDP 성장률 하락의 원인
 - 또한 중국 고속성장의 주요 요인이던 저임금 노동력과 기초설비투자 등이 더 이상 발전 동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
 -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발전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임

< GDP 전 분기 대비 성장률 >

	전 분기 대비 성장률 (%)
2012년 1분기	1.8
2011년 4분기	1.9
2011년 3분기	2.4

자료: 국가통계국

- 정부는 계속해서 “안정 속 진보추구(穩中求進)”의 기초를 유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질적 성장을 추진해나갈 예정
 - 중국은 과거의 자원소모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이 이끌던 경제발전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내수촉진 등 사회구조조정 정책을 실시,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구할 것을 수차례 표명
 - * 1분기 내수의 GDP 공헌률은 109.4%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최종소비지출의 GDP 공헌률은 76%로 17.3% 증가

2. 생산·판매 지수

- 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CPI지수는 2011년 3분기와 4분기 각각 5.8%와 5.4%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분기에는 3.8%를 나타내 하락추세
 -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산물이 대량공급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비축량이 충분하므로 CPI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분기 CPI는 1분기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11년 및 2012년 1분기 CPI지수 >

	CPI(%)
2011년	5.4%
2012년 1분기	3.8%

자료: 국가통계국

- 2011년 3분기 이후 월별 PMI지수는 11월의 49%를 제외하면 모두 50%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계속 상승세
 - 상승세의 원인은 “12.5규획”과 동시에 시작된 국가중점건설항목의 착수, 보장성 주택건설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
 - 또한 주민소득의 빠른 증가와 물가 안정을 통한 주민들의 소비욕구 촉진 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최근 PMI지수 >

시기	PMI(%)
2011년 7월	50.7%
2011년 8월	50.9%
2011년 9월	51.2%
2011년 10월	50.4%
2011년 11월	49.0%
2011년 12월	50.3%
2012년 1월	50.5%
2012년 2월	51.0%
2012년 3월	53.1%

자료: 국가통계국

○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는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이는 국내경제의 주요 동력중 하나인 국내내수(國家內需)가 약하기 때문

○ 실물경제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의 추가 완화 필요성을 의미. 조만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추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음

* 2012. 4월부터 1년간 현금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은 1% 하향조정

3. 취업시장 동향

○ 1분기 취업시장은 큰 변동이 없으나 구인·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 최근 1분기 취업시장 동향 >

(단위: 만 명)

	신규 취업자 수	실업자 재취업 인원수	취업 어려운 인원 취업자 수	실업률
2011년3분기	321	146	46	4.1%
2011년4분기	227	117	41	4.1%
2012년1분기	332	139	43	4.1%

자료: 국가통계국

4. 주택시장 동향

○ 1분기 중국 부동산 시장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계 경제성장 속도 둔화, 세계 경제 불안정, 중국 경기 둔화로 토지 가격이 소폭 하락했고, 전기 대비 토지 가격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임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열기가 낮아지면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

< 최근 부동산 투자액 추이 >

(단위: 억 위안)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억 위안)	(부동산 중) 주택 투자액 (억 위안)
2011년3분기	17,975	13,147
2011년4분기	17,515	12,520
2012년1분기	10,927	7,443

자료: 국가통계국

- 중앙정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에서 각기 시행 중인 부동산 완화정책을 중단시키고, 지속적이며 엄격한 부동산 통제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



자료: 국가통계국

II. 무역동향

1. 총괄

- 중국의 1분기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8,594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300억 달러, 수입은 6.9% 증가한 4,29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 1분기 중국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항목	실적	증가율 (전년 동기비)
수출입총액	8,594	7.3
수출액	4,300	7.6
수입액	4,294	6.9
무역수지	7	-

자료: 해관총서

- 3월 수출입총액은 3,260억 달러로 7.1% 증가. 수출은 1,657억 달러로 8.9% 상승했고 수입은 1,603억 달러로 5.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54억 달러 흑자. 2월 대비 수출입 증가율 하락, 특히 수입 증가율은 2월의 39.6%에서 5.3%로 급락
 - 3월 수입은 전월보다는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하락. 수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는 불안정함. 중국 경제발전이 소폭 둔화되고 있고 주요 외국 상품 수입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대될 수 없으므로 4월의 수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3월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증가속도는 둔화됐고, 수입 증가율이 한자리수인 5.3%로 하락한 것은 국제수요가 불확실하고 국내수요가 위축되어 있으며 투자가 적어진 것을 의미함. 이는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e Management Index)의 하락세 및 해안도시의 공업 발전 속도의 대폭 둔화와 일치. 3월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의 호전보다는 세계 경기 둔화 속의 위축된 성장을 의미함
- 일반무역수지 적자규모는 517억 달러로 9.4% 확대되었고, 가공무역수지 흑자규모는 874억 달러로 13.4% 확대

< 무역방식별 교역현황 >

(단위 : 억 달러, %)

구분	일반무역 (증가율)	가공무역 (증가율)
합계	4526.7 (8.1)	3047.3 (4.4)
수출	2005.0 (7.9)	1960.7 (6.3)
수입	2521.7 (8.2)	1086.6 (1.2)

자료: 해관총서

2. 국가별 동향

- 1분기 EU와의 교역액은 1,269억 달러, 미국과는 1,068억 달러, ASEAN과는 868억 달러, 일본과는 794억 달러를 각각 기록
 - 신흥개발국과의 교역은 확대되고 있음.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남아공 등과의 교역액은 각각 215억(33%), 100억(26.9%), 82억(23.5%), 124억(21.3%) 달러 등으로 크게 증가
 - 반면 대만(-6.7%), 인도(-5.5%), 싱가포르(-2.5%), 일본(-1.6%) 등과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1분기 중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상국/지역	수출입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총액	859,370	7.3	430,013	7.6	429,357	6.9
EU	126,869	2.6	75,188	-1.8	51,680	9.8
미국	106,771	9.3	74,568	12.8	32,203	2.1
ASEAN	86,784	9.2	41,145	13.2	45,639	5.9
일본	79,439	-1.6	36,258	10.3	43,180	-9.7
홍콩	64,233	4.6	60,654	5.3	3,579	-5.9
한국	60,305	6.9	21,608	12.0	38,697	4.3
독일	38,199	2.3	15,853	-2.9	22,346	6.2
대만	35,124	-6.7	7,373	-8.6	27,750	-6.1
호주	27,867	11.4	7,905	10.6	19,961	11.7
러시아연방	21,488	33.0	8,653	14.6	12,835	49.2
말레이시아	20,380	4.4	6,542	17.8	13,838	-1.0
브라질	17,999	11.5	7,217	19.2	10,782	7.0
인도	16,632	-5.5	10,441	-0.9	6,191	-12.5

자료: 해관총서

3. 품목별 동향

- 직물·의류·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전통적 우세상품의 수출 상승폭이 전체 수출 상승폭보다 하락
 - 이는 노동력, 원자재 등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노동 집약적 상품이 동남아 국가의 견제를 받아 약화되고 있고, 주장(珠江)삼각주의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 수출

< 1분기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명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기기계품	252,991	9.1
*첨단기술품	127,329	7.3
자동 데이터 프로세싱 설비 및 관련 부품	40,284	12.0
의류 및 의류관련 부품	29,573	3.9
휴대용 무선 전화기 및 관련 부속품	25,178	33.5
방직실, 직물 및 제품	20,443	1.4
철재	11,740	12.7
가구 및 관련 부속품	9,176	8.9
신발류	9,078	2.8
집적회로	7,583	2.8
정제유	5,415	18.6
플라스틱제품	5,238	14.8

* 전기기계품과 첨단기술품은 위의 표에 나와 있거나 나와있지 않은 관련 상품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 전기기계품의 수출이 2,530억 달러, 첨단기계품이 1,273억 달러, 의류 296억 달러 등을 기록했음
- 기초원자재 중 정제유 54억 달러, 원유 9억 달러, 석탄 및 갈탄 6억 달러를 각각 수출
- 전통상품 중에서는 신발류 91억 달러, 플라스틱제품 52억 달러 수출
- 특히 귀금속 또는 도금한 귀금속 장신구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8.1%, 원유 수출이 86.7% 등 대폭 증가
- 한편 코크스는 -80.0%, 석탄 및 갈탄은 -43.4%, 옥수수 -39.8% 등 수출이 크게 감소

○ 수입

< 1분기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상품명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기기계품	172,877	0.5
*첨단기술품	104,226	3.0
원유	43,838	32.8
철광사 및 정광	28,033	-8.2
초기형태의 플라스틱	11,714	-5.6
자동차와 자동차 새시	9,444	33.6
단조되지 않은 동 및 동재	8,634	31.1
정제유	8,070	12.9
대두	6,279	11.6
철재	5,437	-15.6
폐동	3,245	5.2
펄프	3,059	-7.5

* 전기기계품과 첨단기술품은 위의 표에 나와 있거나 나와있지 않은 관련 상품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 기초원자재 중 철강 수입이 341만 톤(18.4% 감소), 원유 수입은 7061만 톤(11.4% 증가) 기록
- 기계전자제품은 1,738억 달러로 0.5% 증가했고, 첨단기술제품은 1,074억 달러로 3.0% 증가했음
- 자동차는 수입은 29.4만대로 33.6% 증가

III. 최근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종합평가

- 1분기 한·중 교역액은 총 6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음. 특히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이 216억 달러(12.0% 증가), 수입이 387억 달러(4.3% 증가)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개별국가 중 중국의 제4위 교역국
 - 한국으로의 수출증가율(12%)은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 7.6%를 크게 상회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4.3%)은 전체 수입증가율 6.9%에 못 미치는 규모
 - 대한 수입 증가율 둔화는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2월 39.6%에서 3월 5.3%로 급락하는 등 전반전 수입증가율 하락 추세에 따른 것
 - 근본적으로는 1분기 중국의 대EU 수출이 감소하는 등 (증가율 -1.8%) 국제수요 감소와 중국 경제발전 속도 둔화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대한 수입증가율(4.3%)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진 대만(-6.1%), 일본(-9.7%) 등 국가에 대한 수입증가율은 물론, 홍콩(-5.9%), 인도(-12.5%) 등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최근 중국의 對韓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1. 1분기	56,373	24.5	19,300	32.3	37,073	20.6
2011. 2분기	61,693	17.3	21,689	21.6	40,004	15.1
2011. 3분기	63,887	19.9	21,133	23.9	42,754	18.0
2011. 4분기	63,679	13.7	20,801	7.8	42,878	16.8
2012. 1분기	60,305	6.9	21,608	12.0	38,697	4.3

자료: 국가통계국

- 전반적으로 중국 국내 경제가 불안정하고 경제발전이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상품 수입수요가 급증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 경기 악화로 해외 수요가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의 대EU 수출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는 단기간에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